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특성 ·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의 비교 ·

본 연구에서는 우울의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인 자기표상과 대인표상, 그리고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0명으로 구성된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23명으로 구성된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자기표상에 있어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 사이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인표상에 있어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관계지향적 우울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에 비해 지배성, 경쟁성, 냉담성, 회피성의 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데 반해,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은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에 비해 비주장성, 피착취성, 혼신성, 간섭성의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대인표상과 자기표상이 각각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데 반해,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에서 보이는 대인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표상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각각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우울의 하위 유형에 따른 대인표상의 차이가 대인관계문제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주요어 : 자기표상, 대인표상, 대인관계문제, 성취지향성, 관계지향성, 우울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윤현수 / 영동세브란스병원 정신과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FAX : 02-3497-2385 / E-mail : usulcho@hanmail.net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모델은 우울증의 연구와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우울증에 대한 인지이론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와 세상, 그리고 미래에 대해 독특하게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며,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비합리적 신념, 역기능적 태도 등의 인지적 특성들이 우울을 설명하는데 유용한 변인들임을 알 수 있다(Kandel & Davis, 1982; Kovacs & Beck, 1978). 그러나 인지이론에서는 우울증을 유발하는데 있어서의 복잡한 환경적 요인이나 대인관계적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되어 왔다(Segal & Dobson, 1992). 많은 연구들은 우울증과 관련된 역기능적 대인관계의 다양한 형태에 대해 밝혀왔으며, 거기에는 부모-자녀 관계의 문제, 부부 갈등, 높은 빈도의 대인관계 갈등 사건의 존성과 관계지향성의 성격적 특성 등이 포함된다(Blatt & Zuroff, 1992; Gotlib & Hammen, 1992). 우울증에 대한 대인관계 이론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강화와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이것이 우울한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Lewinsohn, 1974). 이처럼 역기능적인 대인관계 측면은 역기능적인 인지와 함께 우울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며, 최근에는 우울증에 대한 인지적 모델과 대인관계 모델을 통합함으로써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보이는 생각과 행동을 이해하려는 틀을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Pietromonaco, Rook, & Lewis, 1992; Siegel & Alloy, 1990). 우울증에 대한 인지이론과 대인관계 이론을 통합하려는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 표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 Gotlib 등(1992)

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표상은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보았는데, 즉 부정적인 도식을 가지고 있는 우울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기대를 갖게 되고, 타인의 사랑이 가치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이러한 생각을 확신시키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우울증에 관한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표상을 강조해 왔는데, 이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은 정상 통제집단에 비해 자신을 더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자신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부정적인 개인적 정보를 더 많이 기억하는 반면에 긍정적인 정보는 잘 기억하지 못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Bradley & Mathews, 1983; Carnelley, Pietromonaco, & Jaffe, 1994). 그러나,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표상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진 것에 반해,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표상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도 명확하지 않다. Kovacs 등(1978)은 자신의 결합에 대한 우울증적 인지가 타인에 대한 지각에까지 이어지는 않으며, 자신과 타인 지각이 어느 정도 분화되어 있어, 우울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가지는데 반해, 대인표상에 있어서는 그 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실제로 어떤 연구 결과들은,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기대는 자기표상에 한정된 것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며(Bargh & Tota, 1988; Pietromonaco & Markus, 1985), Pyszczynski와 Holt 및 Greenberg(1987)도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더 긍정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다른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결과를 지지하는데 (Alloy & Ahrens, 1987; Carnelley et

al., 1994), Alloy 등(1987)은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타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비관적이라고 하였으며, Pietromonaco 등(1992)은 우울한 사람들이 개인적인 정보를 주고받은 낯선 사람들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편향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Bartholomew와 Horowitz(1991)는 자기표상(긍정적/부정적)과 대인표상(긍정적/부정적)이라는 두 개의 구분되는 차원을 사용하여 애착 유형을 분류하여 각 유형에 따른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이 연구에서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모두 부정적인 집단과, 자기표상은 부정적이나 대인표상은 긍정적인 집단은 둘 다 우울에 취약하지만, 자기-개방, 친밀감, 연애관계(romantic relationship)에서의 관여 수준, 정서적 표현성, 타인에 대한 신뢰, 안전감의 기초를 타인에게 두는 성향 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하게 차이를 보인다고 결론지었다. 따라서 두 가지 유형이 동일하게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가지고 있고 우울에 취약하다고 할지라도, 대인표상에 있어서의 차이로 인해 대인관계에서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증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는 성격적 취약성에 따라 우울증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Beck(1987)은 우울 성향이 높은 개인들을 관계지향적 유형(sociotropy/interpersonal mode)과 성취지향적 유형(autonomy/achievement mode)으로 구분하였다. Beck(1983, 1987)에 의하면, 관계지향적 유형은 친밀감, 수용, 이해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이 특징이며, 이들은 스스로 안정감과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인의 거부나 비난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의 대인 관계 행동은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지나치게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Hokanson & Butler, 1992). 반면에, 성취지향적 유형은 타인의 칭찬이나 비판에 강하게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정한 목표와 역할 기대의 성취를 통해 자기-가치감이 창출되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성격은 개인의 독립성이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타인의 비판이나 요구에 덜 민감한 반면에, 목표 성취에 대해 방해받는 것에 민감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의 기준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하는 성향을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격적, 경쟁적, 통제적이며, 대인관계에 얹매이는 것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Hokanson 등 1992).

이상에서, 우울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 인지적 표상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우울과 관련된 두 가지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 보이는 문제의 양상이 다른 것을 볼 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대인관계와 관련한 인지적 표상 자체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부정적인 자기표상이 우울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알 수는 있었으나, 현재 까지 대인표상과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우울의 두 가지 취약성인 관계지향성과 성취지향성에 따라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관계지향성과 성취지향성이라는 두 가지 우울의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행동과 관련된 인지적 요인이란 할 수 있는 자기표상과 대인표상 및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자 하며, 둘째로, 대인관계와 관련한 인지적

표상이 대인관계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우울증의 예방과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특히, 우울한 사람들이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가진다는 기준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생각해 볼 때,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이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 대인 표상에 있어서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인표상에 초점을 두고 대인표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서울의 Y대학과 경기도의 K대학에서 심리학 교양과목을 수강하는 남녀 대학생 5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연구가 실시되었으며, 이 중에서 결측치(missing value)를 가지는 대상자를 제외하여 500명이 연구에 포함되었다. 연구 대상자 중 남학생은 56.6%(283명), 여학생은 43.4%(217명)이었다. 연구 대상자 전체의 우울점수(BDI)를 검토하여 상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우울집단으로, 하위 25%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비우울집단으로 구분하고자 하였으나, 동일한 점수에 해당하는 연구 대상자들을 모두 포함시키기 위하여 상위 22% 및 하위 23%를 구분짓는 점수를 각각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BDI 13점 이상이 우울집단으로 분류되었다. Beck(1978)은 BDI척도에서 0-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10-15점은 경도의 우울상태, 16-23점은 중등도의 우울상태, 24-63점은 심한 우울상태로 우울의 정도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우울집단은 경도에서 중등도의 우울 상태를 보이는 대상자들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기준에 의해 집단을 구분했을 때 비우울집단에는 117명, 우울집단에는 110명의 대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우울집단을 성격유형척도(PSI)의 점수에 따라 또다시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였는데, 즉 성취지향성에 있어서 상위 75% 이상이면서 관계지향성에 있어서는 중앙치 이하인 대학생들은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으로, 관계지향성에 있어서 상위 75% 이상이면서 성취지향성에 있어서는 중앙치 이하인 대학생들은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에는 20명의 대학생들이 포함되었으며,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에는 23명의 대학생들이 포함되었다.

측정 도구

자아존중감 척도.

자기표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하 10점에서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한국판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9였고, 요인분석 결과 단일 요인이 시사되었다.

대인표상 척도.

타인의 행동에 대한 전반적인 지각으로써의 대인표상을 측정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문항을 선정하였다. Cohen과 Hoberman(1983)^[9] 제작한 대인관계지지 평가 척도(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및 김영아(2000)의 연구에서 아동의 또래표

상을 측정하기 위해 제작된 척도 중에 일부 문항을 선정하여 성인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인표상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4점 척도상에서 평가하게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는 .87이었다.

대인관계 문제척도.

대인관계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대인관계 문제척도(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Circumplex Scale: IIP-C; Alden, Wiggins, & Pincus, 1990)를 사용하였다. IIP-C는 Horowitz와 Rosenberg와 Baer와 Ureno 및 Villaseñor(1988)가 Leary(1957)의 대인관계 이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총 127문항의 척도를 Alden 등(1990)이 통계적 절차를 통해 8개의 하위 차원으로 구성된 총 64문항을 재구성한 것이다. 8개의 하위차원은 지배성, 경쟁성, 냉담성, 회피성, 비주장성, 피착취성, 헌신성, 간섭성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차원마다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배성’은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을 분명히 밝히는 자신감을 나타내지만 지나칠 경우 타인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문제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경쟁성’은 타인을 불신하고 의심하며 행동의 이면을 보려 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가지며, 다른 사람의 욕구를 배려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냉담성’은 애정을 표현하거나 친밀감을 느끼는데 어려움을 경험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타인과 잘 어울리지 못하며, 타인에게 관대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회피성’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불안해하며 당황해하고, 먼저 감정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느끼며 사회적 접촉을 피하려는 것을 의미한다. ‘비주장성’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구를 타인에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권위적 역할

을 맡는 것을 불편해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착취성’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까봐 두려워하고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득을 당하며,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기만하고 이용한다고 믿는 것이다. ‘헌신성’은 자신의 이익을 쟁기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고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특성으로, 타인을 잘 믿고 순종적이며 지나치면 자신의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며, ‘간섭성’이란 타인에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부적절한 자기노출을 많이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힘들어하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주목받기를 원하며 지나치게 참견하는 문제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실문자는 ‘나는 좀처럼 ~하기가 어렵다’와 ‘나는 지나치게 ~한 면이 있다’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그렇다고 느끼는 정도를 5점 척도 상에 평정하게 되어 있으며, 각 하위척도들 상의 높은 점수는 그 영역에서 대인관계문제를 겪을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김영환과 홍상황(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70~.85, 10주 간격으로 산출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1~.93이었다.

성격 유형 척도.

우울에 대한 개인의 취약적 성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Personal Style Inventory(PSI; Robins, Welkowitz, Blaney, Diaz, & Kutcher, 1994)를 사용하였다. PSI는 관계지향성, 성취지향성의 두 가지 성격특성을 6점 척도로 측정하는 48문항의 자기 보고식 검사이다. PSI의 표준화 연구(Robins 등, 1994)에서 신뢰도 계수는 관계지향성이 .88, 성취지향성이 .86이었고, 재검사 신뢰도는 관계지향

성이 .80, 성취지향성이 .86이었다. 이 척도에서 관계지향성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 걱정하는 것’, ‘의존성’,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성취지향성은 ‘완벽주의/자기비판’, ‘통제욕구’, ‘방어적인 격리’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고 보고되었다(Robins 등, 1994). 본 연구에서는 이민규(2000)가 번안한 PSI 개정판을 사용하였는데, 이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관계지향성과 성취지향성이 각각 .82와 .81로 확인되었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관계지향성이 .77, 성취지향성이 .80으로 나타났다.

우울척도

우울증상을 평가하기 위해 Beck의 우울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사용하였다. BDI는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21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문항마다 4개의 문장 중에서 자신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한홍무 등(1986)의 BDI에 대한 한국판 표준화 연구에서 반분 신뢰도는 정상 집단에서 .89, 우울증 집단에서 .94로 나타났다. 또한 개별 문항 점수와 전체 점수 사이의 상관은 우울 집단과 정상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절차

성격유형 검사(PSI), 자아존중감 척도(SES), 대인표상 척도, 대인관계문제 척도(IIP-C), 우울 척도(BDI)를 포함하여 총 163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50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시간은 약 20-3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결 과

각 척도들간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 포함된 각 척도들간의 전반적인 관계를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가 표 1에 제시되었다. 표 1에 의하면, 우울수준은 자기표상, $r=-.58$, $p<.01$, 과 대인표상, $r=-.37$, $p<.01$, 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취지향성도 자기표상, $r=-.21$, $p<.01$, 과 대인표상, $r=-.43$, $p<.01$, 모두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관계지향성은 자기표상, $r=-.25$, $p<.01$, 과만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에 취약한 두 가지 성격 유형이 둘 다 부정적인 자기표상과는 상관이 있으나 부정적인 대인표상과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음을 시사해준다.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자기표상은 지배성과 간섭성을 제외한 모든 대인관계문제 영역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인표상은 혼신성과 간섭성을 제외한 모든 대인관계문제 영역들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취지향성은 지배성, $r=.46$, $p<.01$, 경쟁성, $r=.49$, $p<.01$, 냉담성, $r=.56$, $p<.01$, 회피성, $r=.45$, $p<.01$, 비주장성, $r=.29$, $p<.01$, 꾀착취성, $r=.10$, $p<.05$, 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나 혼신성, 간섭성과는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관계지향성은 회피성, $r=.24$, $p<.01$, 비주장성, $r=.53$, $p<.01$, 꾀착취성, $r=.62$, $p<.01$, 혼신성, $r=.64$, $p<.01$, 간섭성, $r=.50$, $p<.01$, 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나, 지배성, 경쟁성, 냉담성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성격 유형에 따라 서로 상이한 대인관계문제와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우울 수준에 따른 차이검증

우울수준에 따라 각 변인들의 값이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을 구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 우울집단은 비우울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t(225)=11.91$, $p<.001$, 대인표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225)=8.08$, $p<.001$.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도 대인관계 문제 총점과 함께, $t(225)=-11.80$, $p<.001$, 모든 하위영역에서도 우울집단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 우울한 사람들이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가지 성격유형인 성취지

향성과, $t(225)=-6.42$, $p<.001$, 관계지향성에 있어서도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t(225)=-7.09$, $p<.001$, 우울집단이 더 높은 성취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 하위유형에서의 자기표상, 대인표상, 대인 관계문제에 대한 차이검증

우울집단을 성격 유형에 따라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으로 구분한 후,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에 있어서의 각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표 2. 각 변인들에 대한 우울집단과 비우울집단 비교

변 인	비우울집단 (BDI ≤ 3) n=117(23%)	우울집단 (BDI ≥ 13) n=110(22%)	<i>t</i>
우울(BDI)	1.64 (1.15)	18.84 (5.79)	-30.59 ***
자기 표상	33.34 (4.12)	26.21 (4.90)	11.91 ***
대인 표상	62.62 (7.17)	54.99 (7.06)	8.08 ***
대인관계문제 총점	160.81 (21.54)	194.29 (21.19)	-11.80 ***
지배성	20.46 (3.82)	21.98 (5.07)	-2.54 ***
경쟁성	19.70 (3.59)	23.95 (4.24)	-8.11 ***
냉담성	17.94 (4.62)	22.95 (5.24)	-7.63 ***
회피성	17.74 (5.37)	24.50 (5.96)	-8.99 ***
비주장성	19.44 (4.74)	25.59 (5.49)	-9.04 ***
피착취성	20.97 (4.90)	26.01 (5.86)	-7.05 ***
현신성	22.85 (4.42)	25.87 (4.96)	-4.86 ***
간섭성	21.71 (4.38)	23.45 (4.85)	-2.83 ***
성취지향성	78.85 (12.33)	89.44 (12.50)	-6.42 ***
관계지향성	86.16 (12.69)	98.54 (13.62)	-7.09 ***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우울집단 하위유형간의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에 대한 차이검증

	비우울집단 (n=117)	성취지향 우울집단 (n=20)	관계지향 우울집단 (n=23)	F
우울	1.64 ^a (1.15)	19.00 ^b (4.93)	17.78 ^b (3.93)	722.93 ***
자기표상	33.34 ^a (4.12)	26.30 ^b (3.66)	27.17 ^b (5.98)	35.71 ***
대인표상	62.62 ^a (7.17)	52.55 ^b (6.06)	58.65 ^a (7.40)	18.53 ***

^{*}p < .05 ^{**}p < .01 ^{***}p < .001^{a,b} 첨자가 같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임.

먼저 우울수준에 있어서 관계지향적 우울집단과 성취지향적 우울집단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우울수준이 동질적임을 알 수 있었다. 자기표상에 있어서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157)=35.71$, $p<.001$, 사후검증(Scheffe) 결과 비우울집단과 우울집단 사이에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두 개의 우울집단 모두 비우울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인표상에 있어서 세 집단을 비교한 결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2,157)=18.53$, $p <.001$, 사후검증 결과에 의하면 성취지향적 우울집단만이 다른 두 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두 우울 집단 모두 자기 표상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인표상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의 경우 자기표상과는 달리 대인표상에 있어서는 비우울집단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자기표상 및 대인표상에 대하여 세 집단간 차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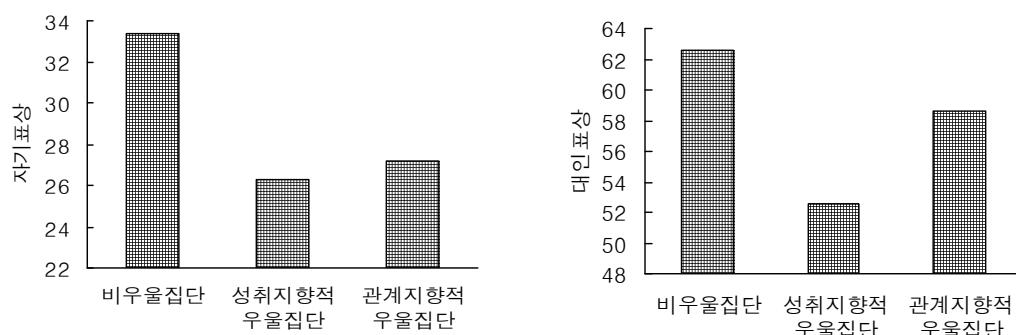


그림 1. 자기표상 및 대인표상에 대한 집단간 차이

비교한 결과가 그림 1에 그레프로 제시되어 있다.

세 집단간의 대인관계 문제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인관계문제의 모든 영역에 대해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대인관계문제 총점에 있어서는 비우울집단이 두 유형의 우울집단과 각각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울한 사람들이 대인관계 문제를 더 많이 드러내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우울 집단 내에서도 하위 집단에 따라 두드러지는 문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지배성, $F(2,157)=14.67, p<.001$, 경쟁성, $F(2,157)=26.04, p<.001$, 냉담성, $F(2,157)=26.12, <.001$, 에 있어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에 반해, 비주장성, $F(2,157)=17.33, p<.001$, 피착취성, $F(2,157)=18.78, p<.001$, 혼신성, $F(2,157)=17.77, p<.001$, 간섭성, $F(2,157)=4.85, p<.05$, 에

있어서는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이 다른 두 집단 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즉 우울집단 내에서도 성격 유형에 따라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낼 수 있었다. 대인관계문제의 각 영역에 대한 집단간의 차이를 그림 3에 제시하였다.

자기표상,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영역들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들이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것에 근거하여,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들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대인관계문제 척도의 하위영역들에 대해 요인수를 2로 지정하여 주축분해법(Principal Axis Factoring)과 Varimax회전을 실시한 결과 두 개의 요인이 설명하는 총 변량은 전체 변량의 55.92%로 나타

표 4. 우울집단 하위유형간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차이검증

	비우울집단 (n=117)	성취-우울집단 (n=20)	관계-우울집단 (n=23)	F
대인관계문제총점	160.81 ^a (21.54)	188.70 ^b (17.93)	187.74 ^b (17.78)	27.66 ***
지배성	20.46 ^a (3.82)	25.35 ^b (5.24)	18.95 ^a (4.70)	14.67 ***
경쟁성	19.70 ^a (3.59)	26.20 ^b (3.11)	21.30 ^a (4.88)	26.04 ***
냉담성	17.95 ^a (4.62)	26.25 ^b (6.18)	18.57 ^a (4.03)	26.12 ***
회피성	17.74 ^a (5.37)	25.05 ^b (6.05)	21.96 ^b (6.43)	17.60 ***
비주장성	19.44 ^a (4.74)	22.30 ^a (5.85)	26.04 ^b (5.97)	17.33 ***
피착취성	20.97 ^a (4.90)	21.15 ^a (5.95)	27.83 ^b (4.20)	18.78 ***
혼신성	22.85 ^a (4.42)	21.35 ^a (4.72)	28.39 ^b (4.10)	17.77 ***
간섭성	21.71 ^a (4.38)	21.05 ^a (5.28)	24.70 ^b (4.23)	4.85 **

* $p < .05$ ** $p < .01$ *** $p < .001$

^{a,b} 첨자가 같은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 차이가 없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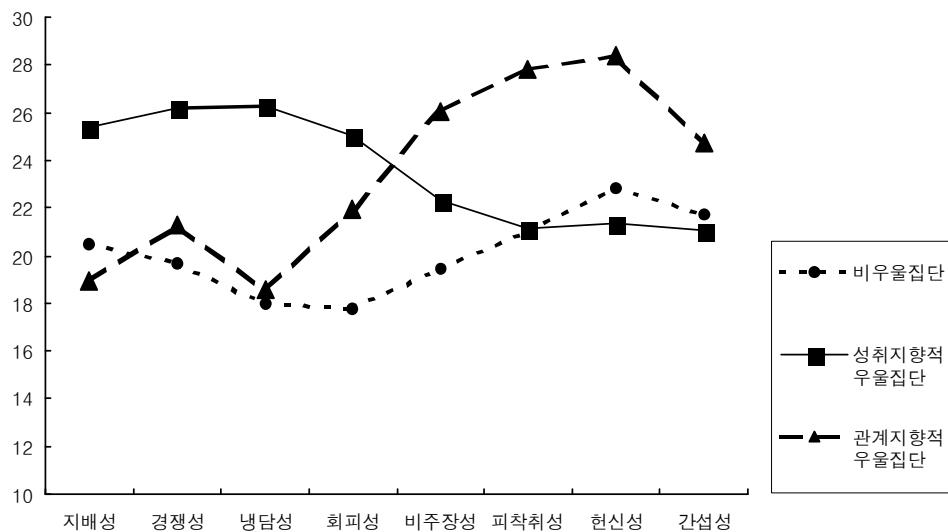


그림 3. 대인관계문제의 각 영역에 대한 집단간 차이

났다. 요인1에는 피착취성, 혼신성, 비주장성, 간섭성의 대인관계문제가 포함되며, 요인1은 전체 변량의 37.45%를 설명해주었다. 요인2에는 냉담성, 회피성, 경쟁성, 지배성의 대인관계문제가 포함되며, 요인2는 변량의 18.46%를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요인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 1은 ‘대인관계문제-의존성’으로, 요인 2는 ‘대인관계문제-독립성’으로 명명하였다.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요인분석에 의해 추출된 대인관계문제의 두 가지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문제-의존성과 대인관계문제-독립성, 그리고 자기표상과 대인표상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우울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하는 본

표 5. 자기표상, 대인표상, 성취지향성, 관계지향성, 대인관계문제 하위요인간의 상관

	자기표상	대인표상	성취지향성	관계지향성	대인관계 문제 의존성
자기표상	1.00				
대인표상	.37 **	1.00			
성취지향성	-.12	-.34 **	1.00		
관계지향성	-.05	.18 *	-.12	1.00	
대인관계문제 의존성	-.16 *	-.03	-.03	.70 **	1.00
대인관계문제 독립성	-.34 **	-.58 **	.66 **	-.15 *	.07

* $p < .05$ ** $p < .01$ *** $p < .001$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이후의 분석에서는 우울집단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상관분석 결과, 대인관계문제-독립성은 자기표상, $r=-.34$, $p<.01$, 및 대인표상, $r=-.58$, $p<.01$,과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으나, 대인관계문제-의존성은 자기표상, $r=-.16$, $p<.05$,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낼 뿐 대인표상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대인관계문제의 하위 요인이 모두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관련이 있으나, 대인관계문제-독립성만이 부정적인 대인표상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대인관계문제-독립성은 성취지향성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r=.66$, $p<.01$, 관계지향성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r=-.15$, $p<.05$,을 나타냈으며, 대인관계문제 의존성은 관계지향성과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r=.70$, $p<.01$, 두 가지 대인관계문제가 상이한 성격 유형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관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각각 대인관계문제에 대해 유의미한 설명

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지금까지 우울집단의 유형에 따라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두 집단간의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차이가 대인표상에서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위의 상관분석에서 성취지향성과 관계지향성이라는 성격적 특성들도 대인표상 및 대인관계문제와 상관관계를 보였으므로 두 가지 성격적 특성을 포함하여 변인들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설명력을 가지는지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성격적 특성들에 의한 간접적인 설명력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대인관계문제 독립성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인관계문제-독립성은 대인표상, $\beta =-.34$, $p<.001$, 과 자기표상, $\beta=-.16$, $p<.05$, 및 성취지향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대인표상은 성취지향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독립성에 영향을 줄 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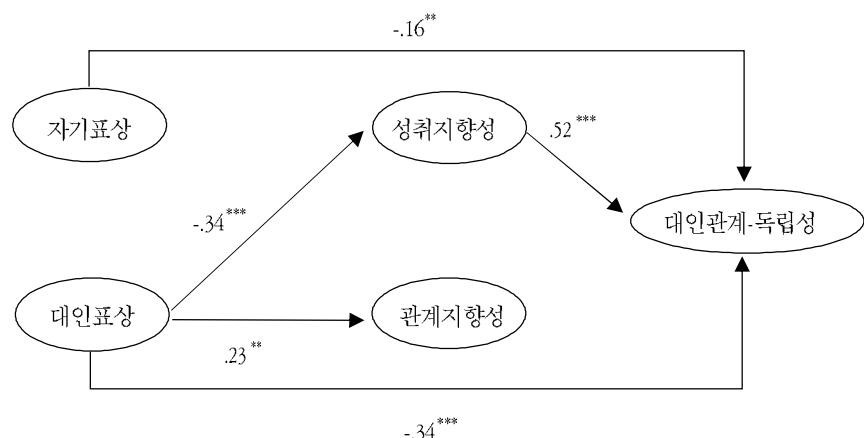


그림 4. 자기표상, 대인표상, 성취지향성, 대인관계문제-독립성간의 경로도

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이 독립성과 관련한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자기표상 및 성취지향성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대인표상도 중요한 요인임을 추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가 그림 4에 제시되어 있다.

이에 반해, 대인관계문제-의존성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인관계문제-의존성은 자기표상, $\beta=-.13$, $p<.05$, 및 관계지향성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인표상에 의해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관계지향성에 의해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력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울한 사람들이 의존성과 관련한 대인관계 문제를 나타내는 데에는 부정적인 자기표상 및 관계지향적 성격 특성이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이들의 관계지향적 성향에는 긍정적인 대인표상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두 가지 유형의 대인관계문제에 모두 부정적인 자기표상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비해 대인 표상은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대인관계 문제 양상의 차이는 대

인표상이라는 인지적 변인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대인관계문제-의존성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대학생들의 대인관계문제 및 이러한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으로서의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울한 사람들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특히 우울한 사람들 을 모두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보다는, 성격적 취약성에 의해 하위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Blatt, Quinlan, Chevron, McDonald, & Zuroff, 1982; Beck, 1987)에 따라, 우울집단을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으로 구분하여 각 우울 하위 집단간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울집단의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에 대해 살펴본 결과, 우울집단은 자기표상과 대인표상 모두에 있어서 비우울집단보다 더 부정적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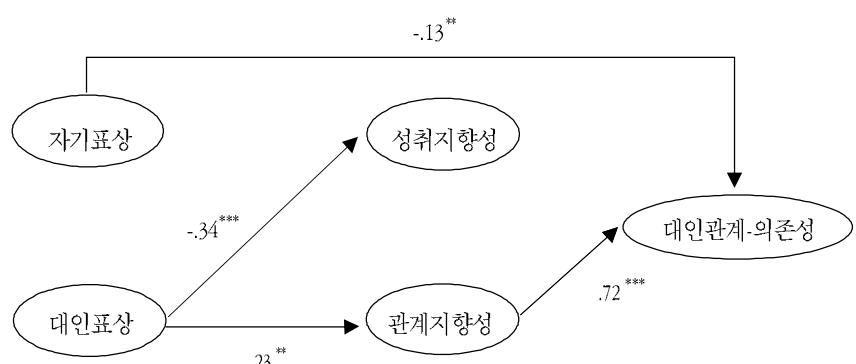


그림 5. 자기표상, 대인표상, 관계지향성, 대인관계문제-의존성간의 경로도

으로 나타났다. 우울집단의 자기표상에 대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Bradley 등, 1983), 대인표상에 대한 결과들은 우울한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는 연구결과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Alloy 등, 1987; Carnelley 등, 1994; Pietromonaco 등, 1992). 그러나, 우울집단을 성취지향성과 관계지향성에 의해 하위집단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자기표상에 있어서는 두 우울집단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대인표상에 있어서는 두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은 관계지향적 우울집단보다 대인표상이 유의미하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 사이에 우울수준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대인표상에서의 차이는 우울수준의 차이에 의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우울 수준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두 집단이 대인표상에 대해서만 차이를 보인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모두 동일하게 부정적인 대인 표상을 갖는 것은 아니며, 우울한 집단 내에서도 대인표상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 두 하위 집단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내준다. 이는 우울한 사람들이 일관되게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나타내는 것과는 달리 대인표상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상을 나타낼 수 있다는 Kovacs 등 (1978)의 연구결과를 지지해주는 것이며, 내적작동모델로 우울을 설명하는 Carnelley 등(1994)의 연구 결과도 확인해 주는 것인데, Carnelley 등 (1994)은 우울과 관련되는 불안정한 내적작동모델에는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을 가지는 유형과, 부정적인 자기표상과 긍정적인 대인표상을 가지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포함된다고 하

였다. 또한 우울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와 기대는 자기표상에 한정된 것이며(Bargh 등, 1988; Pietromonaco 등, 1985), 이들이 자신보다 타인에 대한 생각에 있어서 더 긍정적이라고 한 (Pyszczynski 등, 1987) 일련의 연구결과들과, 이와 상반되게 우울한 사람들이 자신과 타인 모두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진다고 보고한 결과들 (Alloy 등, 1987; Carnelley 등, 1994)로 인해 우울한 사람들의 대인표상과 관련하여 기존의 연구 결과들에서 나타났던 불일치를 본 연구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을 성격적 특성에 따라 하위집단으로 구분하는 것을 통해 설명할 수 있었다.

둘째, 우울집단의 대인관계문제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우울집단은 대인관계문제 총점에 있어서 비우울집단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각 대인관계문제의 하위영역에 대해서도 비우울집단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내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대인관계문제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울집단의 하위유형에 따라 두드러지게 보이는 대인관계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은 지배성, 경쟁성, 냉담성, 회피성의 문제를 많이 보이는데 반해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은 비주장성, 피착취성, 혼신성 간섭성에 있어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두 집단이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영역과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데, Hokanson 등(1992)은 성취지향적 유형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공격적, 경쟁적, 통제적이며 대인관계에 얹매이는 것을 피하려는 성향을 가지는 반면에 관계지향적 유형은 대인관계 행동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의존적이며 지나치게 타인의 환심을 사려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셋째, 대인관계와 관련된 인지적 요인인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대인관계문제를 유의미하게 예측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괴착취성, 혼신성, 비주장성, 간섭성의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문제-의존성에 대해서는 자기표상만이 유의미한 설명력을 가지는 데 반해, 냉담성, 회피성, 경쟁성, 지배성의 대인관계문제를 포함하는 대인관계문제-독립성에 대해서는 자기표상과 대인표상이 모두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존성의 대인관계 문제가 나타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자기표상이 중요한 요인인 것에 반해 독립성의 대인관계 문제가 나타나는데 있어서는 부정적인 자기 표상 이외에도 부정적인 대인표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울에 대한 두 가지 성격적 취약성도 각각의 대인관계문제와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고려하여 성격 유형을 포함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 의하면, 대인표상이 궁정적일수록 관계지향적 성향을 갖게 됨으로써 의존성과 관련한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내게 되는 것에 반해 부정적인 대인표상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성취지향적 성향을 갖게 됨으로써 독립성과 관련한 대인관계문제를 나타내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성취지향적 우울집단과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이 대인관계 문제에 있어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것도 기본적으로 대인표상에 있어서의 차이로 설명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적 표상이 대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우울증의 인지-대인관계이론의 설명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Gotlib et al., 1992).

본 연구의 의의는 우울한 사람들을 모두 동일

한 집단으로 보지 않고, 하위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는 점에 있다. 즉, 하위 유형에 따라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차이를 나타낸 것을 통하여, 동일하게 우울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대인표상과 대인관계문제가 다를 수 있으며,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적 개입도 달라져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본 연구는 우울한 사람들의 자기표상과 함께 대인표상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도 의의가 있는데, 우울의 하위 유형에 따라 대인표상에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대인표상에 대한 기준의 연구결과들이 불일치하는 이유 중 하나가 우울집단내의 비동질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더욱이, 우울한 사람들이 가지는 부정적인 자기표상 뿐만 아니라 대인표상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통해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문제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그들이 가지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인지적 표상을 다루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의존성의 대인관계 문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관계지향적 우울집단에게는 부정적인 자기표상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인데 반해 독립성의 대인관계 문제를 두드러지게 나타내는 성취지향적 우울집단에게는 부정적인 자기 표상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대인표상을 교정하는 것이 치료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우울증의 대인관계이론에서는 우울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적 강화와 지지를 얻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등의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증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는데(Lewinsohn, 1974), 이에 따르면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대인관계문제와 관련된 부정적인 인지를 교정해줌으로써 대인관계문제를 감소시

키는 것이 우울증상의 완화 및 재발 방지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척도상의 문제 및 우울집단을 두 유형으로 구분함으로써 두 집단 중 어느 한 집단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므로, 이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영아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에 대한 대인표상의 매개효과.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영환, 홍상황 (1999). 대인관계평가도구의 표준화 연구: 대인관계문제검사와 원형척도 성 곡논총, 30, 537-594.
- 김은정, 권정혜 (1998). 우울 증상과 관련된 대인 관계 특성: 사회성 및 자율성 성격유형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7, 155-169.
- 이민규 (2000). 한국판 PSI-II의 신뢰도와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 305-317.
- 이영호, 송종용 (1991). BDI, SDS, MMPI-D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2.
- 이훈진, 원호택 (1995). 편집증적 경향: 자기개념, 자의식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 '95 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277-290.
- 한홍무, 염태호, 신영우, 김교현, 윤도준, 정근재 (1986). Beck Depression Inventory의 한국판 표준화 연구 -정상집단을 중심으로(1)-. 신경정신의학 제25권 제3호, 487-502.
-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 521-536.
- Alloy, L. B. & Ahrens, A. H. (1987). Depression and pessimism for the future: Biased use of statistically relevant information in predictions for self versus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366-378.
- Bargh, J. A., & Tota, M. E. (1988). Context-dependent automatic processing in depression: Accessibility of negative constructs with regard to self but not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925-939.
- Bartholomew, K.,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of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eck, A. T. (1983). Cognitive therapy of depression: New perspective. In P. J. Clayton & J. E. Barrett(Ed.), *Treatment of Depression: Old Controversies and New Approaches*. New York: Raven Press.
- Beck, A. T. (1987). Cognitive model of depression. *Journal of Cognitive Psychotherapy*, 1, 2-27.
- Blatt, S. J., Quinlan, D., Chevron, E., McDonald, C., & Zuroff, D. (1982). Dependency and self-criticism: Psychological dimensions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113-124.
- Blatt, S. J., & Zuroff, D. (1992). Interpersonal relatedness and self-definition: Two prototypes for depression. *Clinical Psychology Review*, 12, 527-562.
- Bradley, B., & Mathews, A. (1983). Negative self-schemata in clinical depression. *British Journal*

- of Clinical Psychology, 22, 173-181.
- Carnelley, K. B., Pietromonaco, P. R., & Jaffe, K. (1994). Depression, working models of others, and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6, 127-140.
- Cohen, S., & Hoberman, H.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 Gotlib, I., & Hammen, C. (1992). *Psychological aspects of depression: Toward a cognitive-interpersonal integration*. Chichester, England: Wiley.
- Hokanson, J. E., & Butler, A. C. (1992). Cluster analysis of depressed college student's social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73-280.
- Horowitz, L. H., Rosenberg, S. E., Baer, B. A., Ureno, G., & Villasenor, V. S. (1988).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Psychometric properties and clinical applic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85-892.
- Kandel, D. B., & Davis, M. (1982). Epidemiology of depressed mood in adolescent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1205-1212.
- Kovacs, M., & Beck, A. T. (1978). Maladaptive cognitive structures in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35, 525-533.
- Leary, T. F. (1957). *Interpersonal Diagnosis of Personality*. New York: Ronald.
- Lewinsohn, P. M. (1974). A behavioral approach to depression. In R. J. Friedman & M. Katz(Eds.), *The Psychology of Depression: Contemporary Theory and Research*(pp. 112-139). Washington, DC: Winston-Wiley.
- Pietromonaco, P. R., & Markus, H. (1985). The nature of negative thoughts in depression: Theory and evidence. *Psychological Review*, 91, 347-374.
- Pietromonaco, P. R., Rook, K. S., & Lewis, M. (1992). Accuracy in perceptions of interpersonal interactions: Effects of dysphoria, friendship, and similar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247-259.
- Pyszczynski, T., Holt, K., & Greenberg, J. (1987). Depression, self-focused attention, and expectancies for positive and negative future life event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994-1001.
- Robins, C. J., Welkowitz, J., Blaney, P. H., Diaz, R., & Kutcher, G. (1994). The Personal Style Inventory: Preliminary validation studies of new measure of sociotropy and autonomy.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16, 277-30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gal, Z., & Dobson, K. (1992). Cognitive models of depression: Report from a consensus development conference. *Psychological Inquiry*, 3, 219-224.
- Siegel, S. J., & Alloy, L. B. (1990). Interpersonal perceptions and consequences of depressive-significant other relationships: A naturalistic study of college roommate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9, 361-373.

원고접수일 : 2003. 11. 17
제재결정일 : 2004. 4. 30

Interpersonal-Represent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Depressives: Comparison of Autonomous-Depressives and Sociotropic-Depressives

Hyun-Soo Yune Kyung-Ja Oh

Department of Psychology, Yonsei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explore characteristics of self-representation, object- representation, and interpersonal problems associated with autonomous and sociotropic subtypes of depression. Five-hundred undergraduates completed Self-Esteem Scale(SES), Object-Representation Scal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Circumplex Scale(IIP-C), Personal Style Inventory(PSI), and Beck Depression Inventory(BDI). On the basis of PSI and BDI score, two groups were formed: the autonomous-depressive(A-D) group with 20 students, and the sociotropic-depressive(S-D) group with 23 studen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no group differences between the A-D group and the S-D group in self-representation, but the A-D group was more negative than the S-D group in object-representation. In interpersonal problems, the A-D group was more autocratic, competitive, cold, and socially avoidant, but less nonassertive, exploitable, overly nurturant, and overly expressive than the S-D group. The A-D group reported more difficulties in autonomy-related areas(autocratic, competitive, cold, and socially avoidant) than in sociotropy-related areas(nonassertive, exploitable, overly nurturant, and overly expressive) compared to the S-D group. In addition, while autonomy-relate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predicted by both object-representation and self-representation, sociotropy-related problems were predicted only by self-representation. Further analyses indicated that autonomy-orientation mediated the path from object-representation to autonomy-related interpersonal problems, while sociotropy-orientation mediated the path from object-representation to sociotropy-related problems. Implications of these findings, particularly the effects of object-representation on interpersonal problems in depressives, were discussed.

Keywords : self-representation, object-representation, interpersonal problem, autonomy, sociotropy, depression